

# 설문대할망說話 研究

— 特徵과 變異過程을 中心으로 —

李 成 俊\*

## 目 次

I. 머릿말	2) 傳說的 要素
II. 설문대할망說話의 特徵	3) 民譚의 要素
III. 설문대할망說話의 變異過程	4) 變異過程
1) 神話의 要素	IV. 맺 음 말

## 1. 머 릿 말

1950년대말부터 일기 시작한 濟州島說話에 대한 수집·연구는 그동안 많은 先學들의 구슬땀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진척을 보여왔다. 많은 先學들 중에서도 張壽根<sup>1)</sup>, 秦聖麒<sup>2)</sup>, 玄容駿<sup>3)</sup>의 업적은 아무리 강조한다해도 지나치지

### \* 동문

- 1) 張壽根은 1950년대 제주대학 국어국문과에 재직하면서 <濟州島女神考>, <三姓神話解釋의 한 試圖>, <濟州島巫歌>, <濟州天地創造說話의 文化的 領域> 등의 논문을 발표하는 한편, 濟州說話 수집·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濟州說話 수집·연구의 産婆 역할을 담당하였다.
- 2) 秦聖麒는 「南國의 傳說」, 「南國의 巫歌 1·2·3」, 「南國의 神話」, 「南國의 民譚」 등의 귀중한 자료집을 펴내 濟州說話 수집의 先驅者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 않을 것이다. 이분들은 濟州島說話 수집·연구의 產婆, 先驅者, 開拓者 역할을 담당한 분들이다. 이분들과 함께 김영돈<sup>4)</sup>, 玄吉彦<sup>5)</sup>,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국어교육과<sup>6)</sup>도 濟州島說話 수집·연구에 큰 몫을 담당해왔다. 이밖에도 남몰래 구슬땀을 흘린 분들<sup>7)</sup>이 많다. 그러나 濟州島說話 수집에 있어서 巫歌와 몇몇 자료집을 제외하고는 原音表記가 지켜지지 않았다<sup>8)</sup>는 점, 수집에 비해 연구가 미흡했다는 점, 說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巫歌와 神話에 치중했다는 점 등이 일말의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濟州島說話에는 奇·怪人에 대한 說話가 많다.<sup>9)</sup>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흥미진진하면서도 특이한 說話는 바로 <설문대할망說話>가 아

- 3) 玄容駿은 <濟州島堂神話考>, <본풀이와 叙事詩>, <巫俗神話 본풀이의 形成>, <본풀이의 形成과 內容>, <堂神話 motif와 基本形式>, <堂神話의 內容構成과 背景民俗信仰> 등의 연구를 통해 巫俗神話 연구 및 이론정립에 先驅者 역할을 수행하였고, 「濟州島神話」, 「濟州島傳說」, 김영돈과 공저인 「韓國口碑文學大系 9-1, 9-2, 9-3」, 김영돈·玄吉彦과 공저인 「濟州說話集成(1)」 등의 자료집을 펴내 자료정리에 획기를 이룩하였다. 뿐만 아니라 「濟州島巫俗資料事典」을 펴내 濟州島巫俗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집대성해 놓았다. 따라서 그는 濟州說話 연구의 先驅者이면서 또한 開拓者인 것이다.
- 4) 김영돈은 濟州民謠 수집·연구에 박차를 가해 이론정립에 주력해왔다. 그러면서도 설화에 관심을 기울여 위의 「韓國口碑文學大系 9-1, 9-2, 9-3」과 「濟州說話集成(1)」 등의 자료집을 펴냈다.
- 5) 玄吉彦은 앞서 언급한 「濟州說話集成(1)」을 펴냈고, 「제주도 장수설화」를 펴내 濟州說話의 深層分析에 이바지했다.
- 6)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국어교육과는 제주도 일원(창천·우도·가파도·중문·난산·성읍·남읍·덕수·팍지·광령·행원·대평·온평·하래·귀덕)을 조사하여 설화 뿐만 아니라 부락의 제정보를 수집하여 보고서를 펴냄으로써 자료수집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 7) 李東林, 鄭漢淑, 任東權, 李三悅, 梁重海, 金美蘭, 薛盛景, 李杜鉉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 8) 앞의 「韓國口碑文學大系 9-1, 9-2, 9-3」과 「濟州說話集成(1)」, 秦聖獻의 「南國의 傳說」·「南國의 民譚」을 제외하면 모두 표준어로 기록되어 있다.
- 9)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설문대할망·막산이·고종달·고전적·김통정·진귀수·이귀수·오찰방 등인데, 그의 각종 說話에 奇·怪人에 자주 등장한다. 이는 제주설화의 특징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다.

닐까 한다.

설문대할망은 “漢擎山을 베개삼아 누우면 城山浦에까지 발을 뻗어 물장난을 할 수 있었을” 정도로 키가 큰 巨女였다. 또한 “치마폭에 흙을 담아 다 漢擎山을 만들”고, 제주도의 “오름(小火山)들을 만든” 女神이었다. 따라서 설문대할망說話는 매력적이고 특이한 巨女(神)譚이다. 그런데 이 巨女(神)譚에는 다른 說話에서 찾기 힘든 특이한 점들이 많다.

먼저 할망에 대한 명칭이 지역·제보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다. 설문대할망, 설문대할망, 설명대할망, 설명지할망, 설명두할망, 선문대할망, 선문대할망, 선맹디할망, 세명두할망, 세명뒤할망, 썩맹디할망<sup>10)</sup> 등.

둘째는 다른 說話와는 유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내용이 단순하고 짧다는 점. 說話의 諸要素(神話·傳說·民譚의 性格)를 포괄하는 特異形 說話라는 점. 다른 할망(女神)들과 달리 祭儀對象이 아니라는 점. 說話內容이 각지역에 맞게 각색되어 있다는 점 등.

세째는 濟州民의 意識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說話라는 점이다. 이 說話에는 濟州民의 가난함, 陸地(韓本土)에 대한 동경, 功利性, 平面的 地球觀 등이 나타나 있다.

필자는 本稿에서 설문대할망說話의 特徵을 살펴보고, 그 特徵중의 하나인 神話·傳說·民譚의 要素를 나누어 살핀 후 그 變異過程을 살펴볼까 한다.

본고는 先學들의 구술담으로 채집·정리하신 자료를 정리·분석하는 것이므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아직 濟州島說話(巫歌를 제

10) 이에 대한 참고도서는 ① 金榮敦·玄容駿·玄吉彦; 「濟州說話集成(1)」,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82. ② 玄容駿·金榮敦; 「韓國口碑文學大系·9-1, 9-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1981. ③ 玄容駿; 「濟州島傳說」, 瑞文堂, 1977. ④ 秦聖麒; 「南國의 民譚」, 螢雪出版社, 1979. ⑤ 秦聖麒; 「南國의 傳說」, 一志社, 1959. 등이다. 또한 설문대 할망의 한자 명칭은 沙曼頭姑·曼姑·仙麻姑 등인데 이에 대해서는 李源祚; 「耽羅誌」(奇聞篇)과 張漢詰著·鄭炳昱譯; 「漂海錄」, (汎友 에세이選·86), 汎友文庫, 1977. 을 참고하기 바람.

의한)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에선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한다.

## 2. 설문대할망 說話의 특징

설문대할망 說話의 첫째 특징은 지역·제보자에 따라 할망에 대한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할망에 대한 異名稱이 많다는 점이다.

설문대할망, 설문대할망, 설명대할망, 설명두할망, 선문대할망, 선문대할망, 선맹디할망, 세명두할망, 세명뒤할망, 쉼맹디할망 등.

할망에 대한 異名稱은 이렇게 많다. 그러나 異名稱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정확치 않다. 또한 이 이유를 밝힌 先攻者도 아직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필자의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는 그 이유를 다음 두 가지 차원에서 추정하려 한다.

첫째는 空間的인 이유로 異名稱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한다.

이는 설문대할망 說話의 분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추정이다. 제주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설문대할망을 모르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 說話는 널리 퍼져 있다. 따라서 이 說話가 많은 사람들의 입을 거치는 사이에 할망에 대한 명칭이 조금씩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할망에 대한 명칭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더라도 전달과정에서 조금씩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추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실례를 보자.

먼저 고종달 說話를 예로 들면, 고종달 說話의 경우도 주인공의 이름이 胡宗堧, 고종달, 고종다리, 고종달이<sup>11)</sup> 등으로 나타난다.

11) 註10) 참조 ①~⑤)

다음으로 濟州島民謠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맏돌·방아노래<sup>12)</sup>를 들 수 있다. 이 民謠도 많은 異名稱을 가지고 있다. 맏돌노래, 방아노래, 방애노래, 맏돌·방아노래, ㄹ맏노래, ㄹ래ㄹ는 소리, 방엿놀래, 남방엿 짙는 소리<sup>13)</sup> 등.

이 두 편의 說話와 한 곡의 民謠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구비문학이란 점. 제주도 전지역에 두루 퍼져 있다는 점. 따라서 口碑文學의 경우, 異名稱은 그 분포와도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한다.

둘째는 時間的인 이유로 異名稱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한다.

이는 설문대할망說話가 神話·傳說·民譚的인 요소를 다 포괄하고 있는 特異形 說話라는 점에 염두를 두고 하는 추정이다. 즉, 이 說話가 아주 오래 전에 형성되어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명칭이 조금씩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神話 → 傳說 → 民譚으로 說話가 순차적으로 발달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說話안에 이 세 요소가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 說話의 나이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異名稱과 說話의 나이와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한다.

설문대할망說話의 두번째 특징은 그 內容이 斷片的·突發的이란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설문대할망說話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적하는 사항이다. 이 說話의 어떤 자료도 원고지 10페이지 분량이 안된다. 할망의 巨人像, 활동사항, 사망 및 기타 관련사항 등이 하나의 줄거리에 뭉쳐져 있지 않고 모두 토막토막으로 전해진다.

玄容駿 교수가 채집 정리한 「濟州島傳說」(瑞文堂, 1980.)의 〈설문대할망〉은 民譚화된 설문대할망說話를 제외하고는 가장 긴 것이다. 이 〈설문대할망〉도 토막토막이고 일정한 줄거리에 의해 이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듯

12)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 조약돌, 제주, 1983, p. 32참조

13) ① 上掲書 p. 20, p. 25 ② 玄容駿·金榮敦: 「韓國口碑文學大系 9-1, 9-2, 9-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1982, 1983. 참조

설문대할망說話가 토막토막 전해지고 있는 이유를 張壽根은 〈低級文化民族의 思考法〉에서 찾고 있다.<sup>14)</sup> 즉, 설문대할망說話가 토막토막인 이유를 제주민의 사고방식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고 싶다.

巫歌를 제외한 濟州島說話를 살펴 보면, 비교적 가까운 시대의 일을 얘기하는 說話는 길고, 오래 전의 일을 얘기하는 說話일수록 짧아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설문대할망說話는 다른 說話에 비해 그 나이가 많다. 그러다보니 망각에 의해 빠져 나간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에 따라 중요한 내용만 전승되다보니 토막토막 잘려 있지 않을까 한다.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애초 神이었던 할망이 祭儀對象에서 제외되면서 神으로서 기능과 자격이 약화되고 그에 따라서 傳説・民譚化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변천과정에서 원형이 파괴되고, 그 내용 자체가 부실해져 결국에는 지금과 같이 토막토막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설문대할망說話가 토막토막인 이유는 시간의 경과와 神聖性的의 약화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다음으로 內容의 突發性이다.

어떤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한 할망의 행동이 일정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설문대할망에 아무 목적의식 없이 오줌을 눈 것이 땅을 갈라 섬을 만들었다는 것이나, 흙이 너무 많아 보여 특 친 것이 움푹 패었다든지. 이렇듯 할망의 행동에 목적의식이 없는 것도 神聖性的의 약화로 인한 변화인 것 같다. 즉, 神의 일정한 창조행위가 神聖性的의 약화로 인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흥미를 위해 후세인들이 그 원형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번째 특징은 說話의 諸要素를 포괄하고 있는 特異形 說話라는 점이다.

---

14) 張壽根; 〈濟州島女神考〉, 『제주문화·창간호』, 문충제주지부, 1957. 6. 15)

說話를 神話・傳説・民譚으로 구분하는 것은 세계적인 통례다. 삼분법으로 說話를 구분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神話・傳説・民譚의 구분<sup>15)</sup>

구분 항목	神 話	傳 説	民 譚
전승자의 태도	眞實・神聖하다고 믿음	眞實하다고 믿음	흥미분위로 믿지 않음
시간과 장소	太初・神聖한 장소	구체적인 시간・장소	추상적인 시간・장소
증거물	포괄적이다 (天地, 國家, 人類)	개별적이다 (自然物・人工物)	증거물이 없음
주인공과 그 행위	神, 창조, 건국	특수한 인물	일상적인 인물
전승범위	民族(氏・部族)的	地域的	凡世界的
기 능	민족(씨・부족)융합	지역적 유대강화	사교

이렇게 구분해 본다면 설문대할망說話는 神話・傳説・民譚의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그 대표적인 요소만을 예로 든다면 아래와 같다.

- 1) 神話的인 요소; 할망의 창조활동과 한라산 山神이란 점. 祭儀對象이었던 점.
- 2) 傳説的인 요소; 할망의 자취가 증거물(할망과 관계있는 地形地物)로 남아 있다는 점.
- 3) 民譚的인 요소; 흥미분위란 점. 오줌이 땅을 갈라 놓았다는지 음기로 고기(魚・獸)를 잡아 식량을 삼았다는지,<sup>16)</sup> 속옷을 만들어 달라했다는 점.

15) 張德順・趙東一・徐大錫・曹喜雄; 「口碑文學概說」, 一潮閣, 1982. pp. 17~20.  
을 요약 발췌 도표화한 것임.

네번째 특징은 다른 할망들(女神)과는 달리 현재 祭儀對象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제주도에는 3백 개 가까이 堂이 있다.<sup>17)</sup> 이를 현행 里·洞의 수로 나누어 보면 1개 里·洞당 1·4 개 이상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많은 堂이 있는데 설문대할망堂이나 설문대할망을 모시는 祭儀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설문대할망은 현재 神으로서의 자격과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셈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여기저기에 설문대할망을 모셨던 흔적이 남아 있다.

白鹿仙子活我活我 백록선자여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洗麻姑活我活我 설문대 할머니여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sup>18)</sup>  
(방점: 필자)

위의 기도는 張漢喆의 「漂海錄」 初五日條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기서 洗麻姑는 바로 설문대할망을 말한다. 이런 단정은 같은 책 뒷부분에 나오는 洗麻姑에 대한 작가의 설명을 통해 얻어낸 것이다. 작가가 설명하는 洗麻姑에 대한 일화는 현재 구전되고 있는 설문대할망說話의 내용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문대할망은 「漂海錄」이 기록된 英祖 47(1771) 정월까지만해도 祭儀對象이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병욱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16)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또는 <설문대하르방>이란 제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 ① 金榮敦·玄容駿·玄吉彦; 「濟州說話集成(1)」,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82.
- ② 秦聖麒; 「南國의 民譚」, 嶺雪出版社, 1979.
- ③ 玄容駿·金榮敦; 「韓國口碑文學大系 9-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참조바람.

17)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 p. 863. 참조

18) 필자가 한문에 대한 해석을 써 놓은 것임. 방점도 필자가 찍은 것임.

濟州島에 널리 퍼져 있는 白鹿潭의 傳說과 洗麻姑(설문대할망)의 傳說이 記錄되었다. 그리고 이같이 危急한 處地를 當하였을 때에 無意識中에 白鹿仙子나 洗麻姑를 부를만큼 傳說에 對한 그들의 信仰이 깊었음을 또한 알 수 있는 터이다.<sup>19)</sup>

또하나 설문대할망이 祭儀對象이었음을 보여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巫歌다.

예한로 영주산 저물기 당해서  
 선명희할망으로 논하면  
 그물기에 드러사서 육지로 내조  
 드리 노아 주마 호시다가  
 백명지를 없어 예시건 못하니  
 드리 못 노아서  
 일월산신 처서님 불공입내다

(방점: 필자)

이 인용문은 張壽根의 〈濟州島女神考〉에서 인용한 것인데 “山神굿”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張壽根은 “舊左邑 坪垆里에 사는 神房 高奉仙(男)七十四歲의 口誦”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필자가 高심방(神房)을 찾아본 결과, 高심방은 벌써 고인이 되어 이 세상에 안 계셨다. 그러나 다행히 “山神굿”에 설문대할망 일화가 사실로 불리웠었다는 사실과, 1950년대까지만해도 “山神굿”이 성행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sup>20)</sup>

따라서 설문대할망은 英祖 47年(1771)까지만해도 濟州島民衆들이 祭나 그밖의 비념으로 섬겼었다.<sup>21)</sup> 그러던 것이 1950년대에는 “山神굿”이란 특수

19) 정병욱; 〈「漂海錄」解題〉, (「人文科學」, 延世大學校 人文大學, 1961. 7.)

20) 이 추적에 도움을 주신 분으로는 제주도칠머리당굿보존회 회장으로 계신 安士仁(男. 62歲) 심방과 꺾어서 직접 “山神祭”를 해줬다는 朝天邑 朝天里 金壽童(女. 79歲) 할머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사실은 채집할 수 없었다.

21) 이런 사실은 18세기 산업구조로 볼 때 제주도는 半農半魚였으므로 漁夫는 곧 民衆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려진 결론이다.

하고 국부적인 祭儀에만 남았었다가 현재에는 그것마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섯번째 특징은 說話 內容이 각지역에 맞게 각색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각지역에 있는 地形地物이 설문대할망의 활동사항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 제주시 한내(漢川) 위쪽에는 큰 구멍이 팬 바위가 있는데, 이것은 할머니가 쓰던 감투라 한다. (玄)<sup>22)</sup>

- 城山峰(城山邑 城山里)을 구시통(빨래바구니)으로 삼고 소섬(牛島)은 광돌(빨랫돌)로 삼아 빨래를 했다. (玄)

- 구좌읍의 月郎峯(月郎峰)는 산봉우리가 움푹하게 패어져 있는데, 이것은 할머니가 흙을 집어 놓고 보니 너무 많아 보여서 주먹으로 봉우리를 탁 쳐 버렸더니 움푹 패어진 것이라고 한다. (玄)

- 애월면 郭支里에 흡사 솔덕(돌 따위로 솔전이 걸리도록 놓은 것) 모양으로 바위 세 개가 세워져 있는 곳이 있다. 이것은 선문대할망이 솔을 얹혀 밥을 해 먹었던 곳이라 한다. (玄)

- 겨니(그러니) 설문대할망이 경허여도(그리해도) 죽은장오리(한라산 허리에 있는 물 이름)에는 빠져 죽었다고 하니 ... (口-2)

22) 이후 인용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약칭하여 인용문 맨뒤에 표기하겠음.

- 玄容駿: 「濟州島傳説」, 瑞文堂, 1977. →(玄)
- 秦聖麒: 「南國의 民譚」, 螢雪出版社, 1979. →(秦)
- 金榮敦·玄容駿·玄吉彦: 「濟州說話集成(1)」,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85. →(集)
- 玄容駿·金榮敦: 「韓國口碑文學大系 9-1, 9-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1982. →(口-1, 口-2)
- 張養根: 〈濟州島女神考〉, (『제주문화·창간호』, 문충제주지부, 1957. 6. 15) →(張)
- 任東權: 〈설문대할망說話考〉, (『제주도·17』, 제주도, 1964. 10) →(任)
- 필자채록→(필)

• 설섬(서귀포시 법환동 앞에 있는 섬)에 있는 커다란 구멍 두 개는 할망이 漢孛山을 베개삼고 누우면서 잘못 발을 뺐었을 때 생긴 구멍이다. (張)

• 대죽범벅을 먹고 똥을 싸 버린 것이 山이 되었다. 그 山이 현재 <농가물>이란 곳의 <굿상망오름>이다. (張)

• 朝天里와 新興里 사이에 있는 <엄장매>란 돌무더기와 新村里의 <대섬>과 조천 바닷가에 널리 퍼져 있는 코지(岬)는 할망이 놓다만 다리의 흔적들이다. (필)

• <대섬>, 빌레(암석)에 있는 큰 웅덩이는 설문대할망 발자욱이다. (필)

• 州東新村有巨人跡印在巖石上至今稱曼姑足跡云.

제주성(城) 동쪽 新村에 있는 한 암석에는 거인의 발자욱이 남아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曼姑(설문대할망) 발자욱이라 한다.

(李源祚; 「耽羅誌」, 奇聞篇)

이처럼 설문대할망說話가 각 지역에 맞게 각색되어 있음은 그만큼 설문대할망說話가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각지역의 地形地物에 맞게 각색되어 있다는 것은, 설문대할망說話가 濟州民의 생활과 함께 호흡했다고 볼 수 있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다.

### 3. 설문대할망說話의 變異過程

앞에서 필자는 說話의 三分法을 소개하였다. 그 자리에서 설문대할망說話는 說話의 諸要素를 포괄하는 特異形 說話로 규정하였다. 이제 그 규정을 뒷받침할 이유를 찾아 보기로 하겠다. 또한 설문대할망說話가 가지고 있는 神

話・傳説・民譚의 要素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살펴 보기로 하겠다.

먼저 내용을 神話・傳説・民譚의 要素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神話的 要素

선문대할망說話의 說話資料는 거의 다 地形說明性을 띄고 있다. 神話란 본래 原始民族間에 발생하는 것으로 原始民族間에서는 太初의 세계의 神聖 事象 記述로 어디까지나 신성한 事實로 믿어지는 것이다. 傳説이 흔히 地形이나 地名의 說明緣起性을 많이 띄는데 선문대할망의 說話는 어디까지나 神話에 屬하는 性質의 것이면서도 地形說明性을 분명히 띄고 있다. ……(중략)…… 선문대할망에 關한 傳承說話는 그 原形과 本質을 많이 喪失하고, 後世의 造作을 假飾한 것으로 그 地形說明性으로 봐서 傳説으로 品格을 墜落시키고 있다.<sup>23)</sup>

張壽根의 지적처럼 설문대할망說話는 애초 神話이었던 것이 傳説・民譚으로 변이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神聖性的의 약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神話的인 要素들을 뽑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주도에는 많은 오름(小火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 오름들은 할머니가 치맛자락에다 흙을 담아 나를 때에, 치마의 터진 구멍으로 흙이 조금씩 새어 흘러서 된 것이라 한다. (玄)

② 제주도의 많은 오름들은 할머니가 삼으로 흙을 날라 가면서 한줌씩 놓은 것이라고 한다. (玄)·(張)

③ 구좌읍의 月郎峯(月郎峯)은 산봉우리가 움푹하게 패어져 있는데, 이것은 할머니가 흙을 집어 놓고 보니 너무 많아 보여서 주먹으로 봉우리를 탁 쳐 버렸더니 움푹 패어진 것이라 한다. (玄)

④ 그 오름 줄기의 힘이 어떻게 세었는지 육지가 패어지며 오름이 장

---

23) 張壽根, 앞의 논문, pp. 33~34 인용.

강수(長江水)가 되어 흘러 나갔고, 육지 한 조각이 동강이 나서 섬이 되었다. 이 섬이 바로 소섬(牛島)이다. (玄)

⑤ 기연디(그런데) 설문대할망이 흑(黠)을 싸다가, 거길 메울려고 싸다가 걸어가당(걸어가다가) 많이 떨어지민 큰 오름(오름, 小火山)이 돼곡, 족계 떨어지는문 족은 오름이 돼엿다, 그건 옛말입니다. …치매(치마)에, 치매에 흑(黠)을 싸다가 많이 떨어지민 한라산이 돼곡, 족계(적계) 떨어지민 도롤봉(道頭峯, 제주시 道頭洞 해안가의 봉우리)이 돼엿다, 이건 전설이곡 (口-2)

⑥ 翰林에 있는 山의 하나는 설문대할망이 신고 다니던 나막신에 묻었던 흙이 떨어져 굳은 것이라고 하니 이와 같은 오름이 여러 곳에 있다고 전한다. (任)

⑦ 그래서 할망은 다리를 놓아 주다가 말았다. 그 놓다가 만 다리가至今 翰林 앞바다에 있는 긴 갑(岬)이다. (張)

⑧ 대죽범벅(수수범벅)을 먹고 똥을 싸 버린 것이 山이 되었다. 그 山이 현재 <농가물>이란 곳의 <굿망상오름>이다. (張)

⑨ 漢拏山 山頂 <물장오리>에서 할망이 빨래를 하다가 서답막개(빨래방망이)로 山 한 쪽편을 잘못 때리니 山 一面이 굴러내려 가서 山房山이 되었다. (張)·(集)

⑩ 아들 五百兄弟를 낳고 그 많은 아들을 먹이기 爲해서 큰 솔에 죽을 꿰이다가 그만 잘못해서 솔속에 빠져 죽었다. 子息들도 그것을 알고 山中에서 죽어 버리니 그것이 現在 靈室奇岩의 五百將軍이다. 登山時 五百將軍峯에서 큰소리를 지르면 할망이 성을 내서 구름과 안개를 끼게 한다. (張)

⑪ 예한로 영주산 저물기이 당해서

선맹되할망으로 논호면

그물기에 드러 사서 육지로 내조

드리 노아 주마 하시다가  
 백명지를 없어 예시건 못하니  
 드리 못 노아서  
 일월산신 처서님 불공입내다. (張)

①에서 ⑨까지 예문은 모두 설문대할망의 행위 중에서 創造와 관계가 있는 사항들이다. 여기서의 創造는 天地나 國家·民族的인 광범위한 創造行爲는 아니지만 제주도의 山을 創造했다는 점에서는 神의 영역의 일이다. 제보자에 따라 서로 다른 증거물을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創造란 측면에서 보면 동일행위다. ③은 創造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하나의 섬을 탄생시켰다는 관점에서 보면 創造行爲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켰다.

⑩은 五百將軍과 설문대할망의 자식과의 관계를 보여 주면서, 한라산 山神과 설문대할망을 동일인물로 보아 설문대할망을 한라산 山神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 뽑았다.

⑪은 “山神국”을 행하면서 설문대할망의 행적을 노래하고 있고, 설문대할망을 한라산 山神으로 읊고 있다. 이에 대해 張壽根은 “如何든〈山神국〉對象에 설문대할망도 한몫 끼기도 해서 설문대할망은 또한 漢拏山神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 山神으로 돼가는 形便인 것 같기도 하다”고 하면서 “애초부터 山神도 兼했는지 天地開闢神話의 巨神이 後世에 山神으로 되기도 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필자는 앞에서 설문대할망은 애초 天地創造神에서 漢拏山神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했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이면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먼저 설문대할망說話 성격상의 문제다.

설문대할망說話에서 神話的인 要素들을 분석해 보면 創造行爲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話素들을 분석해 보면 <표 2>와 같이 나타난다.

〈표 2〉 설문대할망說話의 神話的 話素分析

	話素	적용항
創造	할망의 의식적 창조행위	② ③ ⑦
	할망의 무의식적 창조행위	① ④ ⑤ ⑥ ⑨
	할망의 副産物에 의한 창조	⑧
山神	山神으로서의 행위	⑩ ⑨ <sup>24)</sup>
	山神으로 정착하는 과정	⑩
	山神으로서의 祭儀	⑪

話素를 분석하여 본 결과 설문대할망의 神으로서의 행동은 創造行爲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설문대할망說話의 原型은 天地創造行爲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문대할망의 神性は 創造神에서 山神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傳承面에서의 문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설문대할망說話는 원래 神話였던 것이 神聖性的의 약화로 傳說·民譚化되었다고 볼 수 있다. 神話가 傳說·民譚으로 되었다는 것은 “심심풀이” “흥미” “우스개”로 전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떤 〈힘〉을 가진 존재라면 거기에는 조심하고 삼가해야 할 금기사항을 가지므로 일정한 경로를 통해 전승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힘〉을 잃어버림으로써 사람들은 굳이 전승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이다. 설문대할망說話가 토막 토막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아뭏든 설문대할망은 조선 조까지만 해도 漁夫(또는 바다와 관계있는 사람들) 祭儀의 對象이었다.<sup>25)</sup> 이는 곧 조선조까지만해도 설문대할망은 濟州民의 祭儀對象이었다고 볼 수 있다. 왜

24) 이에 대한 문제는 張籌根, 앞의 논문, p. 36. 참조

그리고 사냥꾼의 漢拏山神을 노하게 해서 한라산 정상을 뽑아 던진 계현재의 산방산이고 그 뽑힌 자리가 백록담이란 전설이 있는 것으로 보아 ⑨도 神山으로서의 행위에 놓을 수 있다.

25) 張漢詰; 앞의 책.

나하면 다른 생업수단이 거의 없었던 당시로서는 농사(바다농사와 밭농사)가 주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1950년대에 와서는 “山神굿” 사실에 조금 묻어 있을 정도로 祭儀對象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설문대할망의 경우는 조선조까지만해도 全島的인 祭儀對象이었다가 1950년대에는 “山神굿”에 조금 묻혀 있었고, 현재는 그 祭儀마저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2) 傳說的 要素

傳說이 神話·民譚의 성격과 크게 다른 점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가진다는 점, 개별적인 自然物 또는 人工物을 증거물로 지닌다는 점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설문대할망說話의 傳說的 要素를 추출해내면 다음과 같다.

① 제주도 한내(漢川) 위쪽에는 큰 구멍이 팬 바위가 있는데, 이것은 할머니가 쓰던 감투라 한다. (玄)·(口-2)

② 제주도에 많은 오름들이 있는데 그 오름들은 할머니가 치맛자락에 흙을 담아 나를 때, 치마의 터진 구멍으로 흙이 조금씩 흘러내려 된 것이라 한다. (玄) (張)

③ 성산면 성산리 일출봉에는 많은 기암(奇石)이 있는데, 그 중에 높이 솟은 바위에 다시 큰 바위를 얹어 놓은 듯한 기암이 있다. 이 바위는 설문대할망이 길쌈을 할 때 접시불(또는 술불)을 켜던 등잔이라 한다. (玄)

④ 舊左邑 松堂里에 있는 들판의 큰 岩石은 설문대할망이 작은 술을 걸어 놓고 밥 지어 먹던 돌이다. (張) (任)

④' 涯月面 郭支里에 흡사 술덕(돌 파위로 술잔이 걸리도록 놓은 것) 모양으로 바위 세 개가 세워져 있는 곳이 있다. 이것은 선문대할망이 밥을 해먹던 곳이라 한다. (玄)

⑤ 할망은 다리를 놓아 주다가 말았다. 그 놓다가 만 다리가 至今 翰林 앞바다의 긴 갑(岬)이다. (張)

⑤' <영장매>란 돌무더기와 新村里의 <대섬>과 조천 바닷가에 널리 퍼져 있는 코지(岬)는 할망이 놓다 만 다리다. (필)

⑥ 오줌이 장강수(張江水)가 되어 흘러 나갔고, 육지 한 조각이 동강이 섬이 되었다. 이 섬이 바로 소섬(牛島)이다. …… 그 오줌 줄기의 힘이 하도 세었기 때문에 깊이 패여서, 지금 고래·물개 따위가 사는 깊은 바다가 되었고, 그때 세차게 오줌이 흘러가던 흔적으로 지금도 이 바다는 조류가 세어서 파선하는 일이 많고, 파선하면 조류에 휩쓸려 내려가서 그 형체를 찾을 수 없다. (玄)

⑦ 기타 앞에 나열된 1-②<sup>26)</sup>, 1-③, 1-⑤, 1-⑥, 1-⑧, 1-⑨, 1-⑩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처럼 설문대할망說話의 傳說的 要素는 거의가 地形說明性을 띠고 있다. 이 점은 설문대할망說話의 또다른 특징이 될 수 있다. 또한 ④와 ④', ⑤와 ⑤'에서 보는 것처럼 동일한 증거물이 두 군데 있는가하면, 같은 행위의 증거물이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설문대할망說話가 濟州民 가슴 깊은 곳에 간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솔덕 비슷한 모양의 돌을 보거나 다리 모양을 한 地物을 보면 바로 설문대할망을 연상했을 정도로 濟州民들은 설문대할망說話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설문대할망說話의 또다른 면모는 ⑥에서 볼 수 있는데, 예문⑥은 地形說明이 아닌 自然現像을 그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예는 영동할망說話에서도 볼 수 있는데<sup>27)</sup>, 이처럼 自然現像을 神과 연관시키는 것은 극

26) 원래는 3-1-②로 표기해야 하나 편의상 1-②로 표기한다. 이하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27) 영동할망이 제주에 와 있는 동안(음력 2월1일에서 14일까지)은 파도가 높으니 바다에 나가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있다.

복하기 힘든 自然現像을 神의 섭리로 생각하여 조심함으로써 자신을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한다.

### 3) 民譚의 要素

民譚이란 현실을 초월해서 흥미위주로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및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즉, <믿거나 말거나>한 흥미본위의 얘기다. 그 대표적인 예가 秦聖麒의 「南國의 民譚」에 실린 <설문대 할망>, 金榮敦·玄容駿·玄吉彦 공저인 「濟州說話集成(1)」에 실린 <설문대 할망과 설문대하르방>, 玄容駿·金榮敦의 「韓國口碑文學大系 9-1, 9-2」의 <설문대 할망> 등이다. 이것들은 누가 들어도 웃어 넘길 이야기이다.

그런데 張籌根은 “대죽범벅(수수범벅)을 먹고 똥을 싸 것이 ㅅ이 됐다든가 옷을 만들어 달라는데도 何必 속옷을 내건 것들로 봐서 興味를 本位로 하는 民譚種類에로”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현재 전해지는 설문대 할망 說話의 대부분은 民譚的 要素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張籌根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여 民譚的 要素를 추출하면 다섯 가지의 話素가 나온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내용은 생략하고 그 話素들만 뽑아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속옷을 해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 주겠다. (거의 모든 자료에 나타남)

2) 할망의 똥이 굳어서 ㅅ이 되었다. (張)

3) 할망의 오줌이 본섬(濟州島)과 소섬(牛島)을 갈라 놓았다.

(玄)

4) 할망의 음기를 이용해 고기 또는 사슴을 잡았다.

(秦), (口-1), (口-2), (集)

5) 설문대하르방 자기 길이가 갈대 길이 세 배만큼 했다. (秦)

1)의 경우는 거의 모든 제보자들이 구술하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설

문대할망說話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 그렇다면 民譚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 남아 있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필자는 세 가지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도에서 속옷이 아니고 허리(치마 같은 옷의 허리), 허리만 당하여 주면은 목포래 가는 드릴(다리를) 놔주겠다.(놓아 주겠다).  
기연디(그런데) 그걸 하여 주질 못하여서, 드릴 못 낫고(놓았고)…….  
(방점: 필자) (口-2)

여기서는 분명하게 <속옷이 아니고 허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음 예문을 보자.

아, 할망이 옷을 멘드라주민 (필자: 무신 옷 마섬?) 무신 옷은 무신 옷이라 두리마개(두루마기)쥬. (필자: 속옷이 아니고 예?) 그친 요섯사람들이 맹근(만든) 말이고, 육지까지 드릴 놔주켄(주겠다고)…….  
(방점: 필자) (필)

여기서도 <속옷이 아닌 두루마기>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속옷 얘기는 요즘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하고 있다.

曰此土人製一衣則我必連槁於大陸使徒步往云

“土人(제주민)이 나의 옷 한 벌만 만들어 주면 나는 육지와 다리를 놓아 걸어서 왕래하기에 편하게 해주겠다”고 말하곤 했다.

(방점: 필자)

이 인용문은 李源祚의 「耽羅誌」 奇聞篇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에도 <一衣(옷 한 벌)>로 쓰여 있다. 따라서 속옷이라고 변하기 이전에는 치마나 두루마기 또는 다른 종류의 옷이었다. 그러므로 張壽根의 주장은 옳은 것이

고, 속옷이라는 표현은 民譚의 要素가 첨가된 형태라 할 수 있다.

2) 의 경우는 사람들이 더럽게 여기는 배설물을 끌어들이므로써 흥미를 가한 경우다. 이와 비슷한 예는 <손당장수說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說話 역시 人糞이 山岳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2) 의 경우와 상통한다. 이처럼 사람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것을 이용해 흥미를 자극하는 경우는 현대의 文學作品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3), 4), 5) 의 경우는 性を 등장시켜 흥미를 돋구는 경우인데, 비슷한 說話로는 <변인태 (邊仁泰) 說話>를 들 수 있다. 이같은 경우는 설명이 없어도 벌써 웃음이 터져 나온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설문대할망說話는 神話·傳說·民譚의 要素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존하고 있다. 神話·傳說·民譚의 性格이 기묘하게 어울려 흥미를 유발하고, 說話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話素들을 뽑아 정리하면 神話·傳說·民譚의 要素로 나눌 수 있다.

#### 4) 變異過程

지금까지는 설문대할망說話의 神話·傳說·民譚의 要素들을 뽑아 각요소간의 차이점을 살펴 보았다. 이제부터 필자는 각요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지 說話의 變異過程을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神話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설문대할망은 애초 創造神이었다.

; 漢擎山, 오름(小火山), 해안가의 코지(岬)를 창조했다.

2) 애초 創造神의 얘기였던 설문대할망說話는 할망의 神聖性이 약화되면서 傳說·民譚으로 변하였다.

; 사소하고 구체적인 事物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傳說로, 性的인 요소와 사람들이 더럽게 여기는 人糞 등을 첨가하여 흥미본위의 民譚으로.

3) 創造神이었던 할망이 民衆들의 의식에서 멀어져 국부적인 山神으로 神

의 성격이 변했다.

； 1950년대에 “山神국” 시설에 할망의 행적과 일화가 남아 있었다.

4) 祭儀對象에서 제외되면서 급속도로 傳說・民譚化되어 현재는 神으로서의 기능과 자격을 거의 상실한 상태다.

； 民譚화된 설문대할망에게서 神으로서의 기능이나 자격을 발견하기 힘들다.

5) 현재 할망의 神으로서의 일화는 傳說・民譚에 흡수・동화되어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다.

； 俗世的 취미와 흥미에 의해 神話가 변질되었다.

둘째 傳說에 대해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1) 神話였던 할망의 얘기가 구체적이고 사소한 事物을 증거물로 가지면서 傳說化되었다.

； 創造行爲에 역점을 두지 않고 주위의 事物들을 할망과 연결시켜 神을 凡人으로 낮추고 있다.

2) 神이었던 할망이 神聖性的의 약화로 말미암아 凡人化되고 그와 때를 같이 하여 神話가 傳說化되었다.

3) 神話가 傳說化되는 단계는 祭儀對象에서 제외되고 있는 단계다.

4) 구체적인 증거물을 확보하여 民譚과 함께 전해지고 있다.

셋째 民譚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神聖성이 완전히 거세되어 할망이 俗人化되었고, 祭儀對象에서도 제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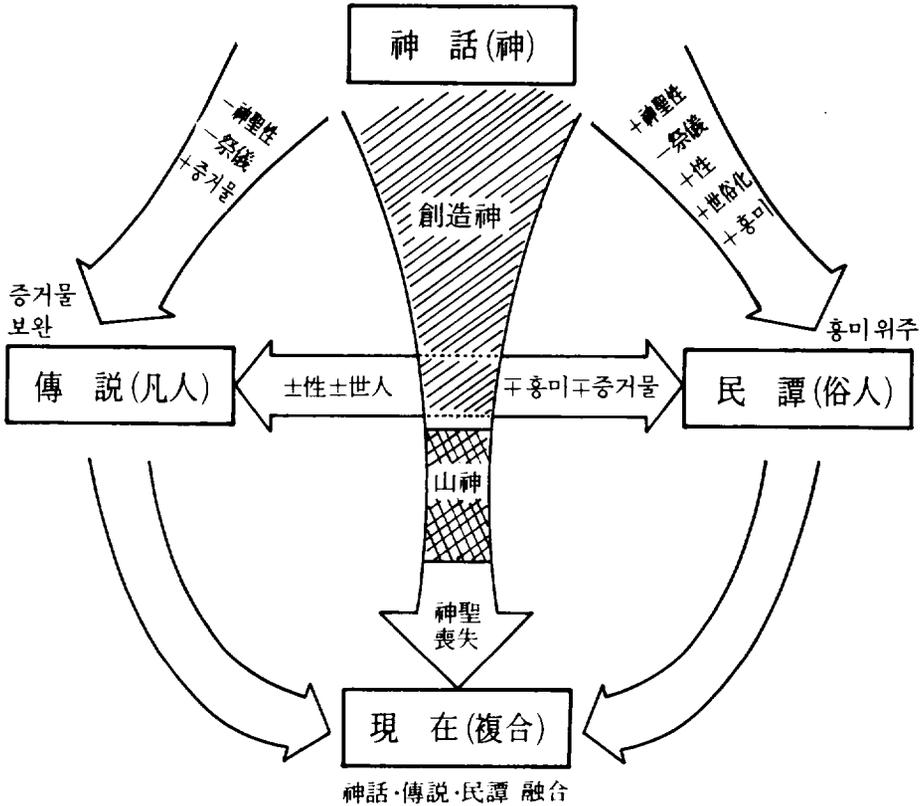
2) 性的인 要素를 끌어들이어 흥미를 갖게 하고 있으며 神이 아닌 凡人을 다시 비하시켜 世俗化시키고 있다.

3) 傳說에 남아 있던 구체적 증거를 소멸, 추상적으로 변했다.

4) 완전히 흥미위주로 내용이 바뀌었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 표 3 〉 설문대할망說話 變異過程



#### 4. 맺 음 말

先學들의 구슬땀을 무덤으로 삼아 설문대할망說話의 特徵과 變異過程을 미력하나마 살펴 보았다.

앞의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면

1) 설문대할망說話의 特徵은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첫째, 할망에 대한 異名稱이 많다는 점. 설문대할망, 설문대할망, 설명대할

망, 설명두할망, 선문대할망, 선문데할망, 선맹디할망, 세명두할망, 세명뒤 할망, 썬맹디할망 등. 이처럼 할망에 대한 異名稱이 많은 이유는 時·空間的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時間的 理由는 설문대할망說話가 아주 오래 전에 형성되어 口傳되는 동안 그 명칭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말함이고, 空間的 理由는 여러 사람의 입을 거쳐 전파되는 동안 그 명칭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說話 內容이 斷片的이고 突發的이라는 점이다. 필자는 그 이유를 위에서 말한 時間的인 이유와 神聖性이 약화에서 오는 현상이라 보았다.

세째, 이 說話는 說話의 諸要素를 포괄하는 特異形 說話라는 점이다.

네째, 설문대할망은 다른 할망(女神)들과 달리 현재 祭儀對象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필자는 創造神에서 神聖性의 약화로 말미암아 山神으로 변했다가 山神祭가 소멸됨에 따라 설문대할망의 祭儀도 소멸했다고 봤다. 필자는 설문대할망은 1950년대까지만해도 祭儀對象이었음을 밝혔다.

다섯째, 說話의 內容이 각지역에 맞게 각색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濟州民의 가슴 깊은 곳에 설문대할망이 자리잡아, 濟州民과 함께 호흡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정리한 바 있다.

2) 설문대할망說話의 變異過程을 살펴 본 결과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神話領域에서,

설문대할망은 원래 創造神이었다. 그러던 것이 神聖性이 약화되면서 凡人·俗人으로 변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山神이 되었다가 山神祭의 소멸과 함께 할망에 대한 祭儀도 소멸되었다고 봤다.

둘째 傳說領域에서,

神聖性의 약화로 神으로서의 자격과 기능을 잃어가는 시기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각종 事物을 증거물로 포획 傳說化되었고, 그와 함께 神이었던 할망이 凡人化되었다.

세째 民譚領域에서,

神聖성을 상실한 상태의 할망에게 性的인 要素와 흥미로운 일들을 첨가시켜 民譚化되었고, 傳說에 있었던 증거물들을 내용에서 제외시켜 흥미본위로 바뀌었다. 그때 神으로서의 할망은 없고 오직 俗人化된 할망만을 강조하여 정착되었다.

따라서 설문대할망說話는 < 표 3 > 과 같은 變異過程을 거치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설문대할망說話에 나타난 濟州民의 意識을 밀도있게 파악해야 할 것이고, 異名稱이 나타나게 된 정확하고도 과학적인 이유 제시, 설문대할망 祭儀의 변모과정 파악 ‘創造神 → 山神 → 祭儀에서 제외’ 된 이유를 파악하는 일 등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 그 일들을 뒤로 미루고, 미력하지만 본고가 설문대할망說話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 參 考 文 獻

### 1. 자 료 편

1. 金榮敦·玄容駿·玄吉彥；「濟州說話集成(1)」,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85.
2. 秦聖麒；「南國의 民譚」, 螢雪出版社, 1979.
3. 玄容駿；「濟州島傳說」, 瑞文堂, 1979.
4. 玄容駿·金榮敦；「韓國口碑文學大系 9-1, 9-2, 9-3」, 1980, 1982, 1984.

### 2. 論文 및 著書

1. 金榮敦·申幸澈·姜榮峯；〈解放後 濟州研究概觀〉, (「耽羅文化·창간호」,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82.)
2. 金榮敦；「濟州島民謠研究」, 조약돌, 제주, 1983.
3. 任東權, 〈설문대 할망考〉, (「제주도·17」, 제주도, 1964.10)
4. 張德順·趙東一·徐大錫·曹喜雄；「口碑文學概說」, 一潮閣, 1982.
5. 張壽根；〈濟州島女神考〉, (「제주문화·창간호」, 문충제주지부, 1957. 6.15.)
6. 玄容駿；「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

< 필자채록자료 >

## 설문대할망

- 조사일시 : 1988.11.16 오후 2시
- 조사장소 : 조천읍 조천리 3104-7 金壽童 할머니 자택
- 계보자 : 金壽童(女·79歲)
- 채록자 : 李成俊

### < 조사개황 >

설문대할망에 관한 얘기를 채집하기 위해 제주도 일원을 두루 다녔으나 이미 채집된 내용에 비해 특이한 점을 거의 발견치 못했다. 그러던 중 玄容駿 교수님으로부터 李源祚의 「耽羅誌」(奇聞篇)에 설문대할망에 대한 기록이 있더라는 귀중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 내용은 “朝天邑 新村里에 설문대할망 발자욱이 남아 있다”는 것이었다. 이 기록 내용이 현재 구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朝天·新村里 일대를 사흘간이나 수소문했으나 확인할 길이 없었다. 출기도 하고 해서 조천·신촌 경계지(속칭, 관물)에 있는 친구집으로 찾아갔다. 마침 할머니가 계셔서 인사드리고 살아가는 얘기 끝에 설문대할망에 대해 물었다. 잘 모른다고 하는 걸 부추겨 세웠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젠 잊어부런, 다 잊어부런 잘 몰라. 요샌 그런 말 허지덜도 안 허곡. 건디(그런데) 낫날엔(옛날엔) 그런 말이 이섯쥬(있었지). 설문대할망 이랭헌(이라고 한) 지레(키) 큰 할망이 이섯는디 가달을(다리를) 별기른(별리면) 추라도까지 가는 할망이. 건디 할망 지레가 하도(위낙) 커부난 옷을 못 입엉 살았거든. 그래서 제주사람덜암피(제주사람들한테) 옷을 뎀들어 드랜. 거른(그러면) 육지까지 드릴 노아주겠다고. 아, 할망이 옷을

멘드라주민 (필자: 무신 옷 마섬?) 무신 옷은 무신 옷이라 두리마개 (두루마개)쥬. (필자: 속옷이 아니고 예?) 그건 요셋사름덜이 멩글어(만들어) 낸 말이고, 육지가정 드릴 놈주겠다 했거든. 건디 제춧사람덜이 베 혼필이 부족해와서 옷을 못 멩글아줬거든. 게난(그러니깐) 놓던 드릴 설러부렀쥬(그만 뒤버렸지). 9기 대섬도 할마님이 드리 놓던 그뭇(자취)이고, 영장매<sup>1)</sup>도 그 그뭇이쥬.

(필자: 옛날 책에 보난 신촌 어디 설문대할망 발자욱이 있덴 행게 그런 말 못 들어봐수파?)

무신 책 (필자: 조선시대 책마씀) 누젠지 몰라도 이시난 써실테쥬. 난 잘 몰라. ... 9기 대섬 말인가? (필자: 어디 마섬?) 닛날 그런 말이 이실거라(있을 걸). 9기 대섬 들어가는 물통. 그 빌레(바위)에 나막신모냥(처럼) 파정(파져) 있쥬(있지). 그건 당추 황당헌 소리고. 건디 그걸 할마님 나막신 즈국이랜 해났덴 허난 ..... 막 잇날에.

(필자: 9 대섬 빌레에 파진 웅덩이 말이쥬예?) 응. (필자: 건디 할머니 옛날 산신제도 해나수파?) 해났쥬. (필자: 거문 산신제에 설문대할망 소리도 이서나수파? 사설중에?) 닛날 해나긴 했는디 몰라. 우리 젊을 때까진 불공<sup>2)</sup> 드릴 때 해났쥬. 저 꼴막(舊左邑 東福里)인가 벨방(舊左邑 下道里) 심방이 그거 잘 해났쥬.

(필자: 어떤 심방 마씀. 그 심방 이름 알아집네까?) 그 머시나 김 머시던가, 이 머시던가? 오래부난 잘 몰라. 그 심방이 우리영 산신제(山神祭) 불공 드릴 때 잘해났쥬. (필자: 그 사설 허썰도 모르쿠과?) 이젠 몰라. 해난 거 듣기만 했시니까. 건디 백록산신(白鹿山神)이영 오백장군(五百將軍)이영 해나긴 해서.

주: 1) 조천읍 조천리와 신흥리 경계 해안가의 돌무더기. 영장매코지라고도 함.

2) 불공이라 했으나 아무래도 불공이 아니고 巫俗祭儀 같음.